

학교급식의 로컬푸드 이용실태와 학교영양(교)사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A Study on the Utilization,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Local Food in School Food Service

정인경¹ · 김현철*² · 이정탁³ · 김영⁴ · 김경미⁴

중앙대 가정교육과¹, 중앙대 경영학부², 중앙대 식품영양학과³, 농촌진흥청 전통한식과⁴

Jung, In Kyung¹ · Kim, Hyeon-Cheol*² · Lee, Jung-Tak³ · Kim, Young⁴ · Kim, Kyung-Mi⁴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¹,

School of Business, Chung-Ang Univ.²,

Dept. of Food & Nutrition, Chung-Ang Univ.³,

Korean Food & Culture Division, NAAS, RDA.⁴

최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역 내 소비확대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먹거리 교육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창출 할 수 있기에 많은 지역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을 통한 로컬푸드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도입 및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뿐 아니라 학교급식 운영자 또는 담당자의 태도 및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에서의 로컬푸드 도입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해 보고자 전국 7개 지역(순천시, 합천군, 서울특별시, 나주시, 동해시, 구미시, 청송군)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에서의 로컬푸드 이용 실태와 만족도,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학교의 로컬푸드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체 학교의 74.4%가 현재 로컬푸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활성화지역과 비활성화 지역 모두 주 3회 이상 그리고 월 식재료비 중 로컬푸드 구입비율이 30%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활성화지역과 비활성화지역간에 로컬푸드 사용 빈도 및 구입비율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도입에 있어서 활성화지역의 영양(교)사의 경우 친환경적 요인을, 비활성화지역의 경우 건강지향적 요인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는 활성화지역의 경우 유통매장을 통해서, 비활성화지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양념류를 제외한 곡류, 잡곡류, 채소류, 과일류의 이용 빈도도 활성화지역이 비활성화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화지역 및 비활성화지역 영양(교)사 모두 로컬푸드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를 도입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다양한 식재료의 어려움’ 때문에 반대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로컬푸드에 대한 만족도는 안전성과 영양면에서 가장 높

있으며 다양성과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이용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학생들의 식생활교육 효과 항목이 가장 낮았다. 학교급식에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체계로는 '농가 및 생산업체와 직거래 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예산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로컬푸드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품목의 다양화 및 규격화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